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기 943-9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발원로 1614(상림동 60)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1월 22일(수) 제 3023호



**코람코 자산운용 전주사무소 개소식** 21일 부동산 전문 운용사이자 국민연금공단 자금 운용사인 '코람코 자산운용'이 전주에 본사 외 첫 지방사무소를 개소했다. (관련기사 4면) <사진=전북도>

## 전북자치도, K-문화·체육·관광산업으로 지역가치 확장

**도민 문화접근성 향상 새로운 미래 문화산업화 기반 구축  
 특색 있는 콘텐츠와 지속 가능한 자원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균형 성장 및 체육 인프라 확충**

전북자치도는 2025년 비전으로 '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전북특별자치도'를 제시하며, 문화·체육·관광산업을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기 위해 총 3,9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를 융성하게, 지역을 활기치게, 경제를 풍요롭게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문화, 관광, 체육, 문화유산 등 4개 분야에 걸쳐 19개 세부 실행 과제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비전을 실현할 방침이며 특례와 관련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 용역 추진과 국가사업 발굴에도 중점을 두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균등한 문화 향유 환경 조성과 케이문화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 콘텐츠 기업 육성,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도민의 문화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지역 문화를 활용한 문화환경 조성 및 문화산업화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전북만의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발굴과 명품관광지 개발, 관광마케팅 강화로 외래관광객이 더 오래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을 더욱 확산시키고 전북자치도 관광 브랜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조화를 통해 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고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스포츠 허브로 도약하

며, 공공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도민의 일상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또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이어가며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발굴을 통한 미래유산 가치확산, 세계유산과 역사문화권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을 통해 도민 국가유산 향유 기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 체육,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융합 성장 전략을 통해 전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세계 무대에서 지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이 가진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2036년 하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 도, 국가공모사업으로 국비 1조원대 확보

**전북, 24년 153개 사업에 1조원대 국가공모사업 따내  
 대응계획 수립 등 체계적 대응...전년대비 878억원 증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과 성장 원동력 이끌 것으로 기대  
 올해도 '준비된 전북특별자치도' 이미지 부각 등 적극 대응**

전북자치도가 2024년 한해동안 국가공모사업에 153개 사업이 선정되면서 국비 1조3천412억원을 확보, 재정운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전년대인 2023년 1조2천534억원 대비 878억원 증가한 규모로 전북자치도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결과로 평가된다.

중요부처는 대규모 지역사업, 지역별 경쟁사업 등에 대해 사업대상 선정방식을 공모형식으로 확대하는 추세여서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국가예산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이같은 정부 정책방향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초 연간 국가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한 뒤 공모 대상 사업발굴, 사업 필요성 검증 등 초기 준비부터 응모 및 평가 등 최종 선정까지 단계별 대응 지침을 마련, 체계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한, 매월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해 지휘부가 직접 중앙부처 관계자 설득 활동을 펼치는 한편 시군 및 지역 국회의원실 등과 협력하고 있다. 2024년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도의 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이차전지·농생명 등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분야에 대한 공모사업 선정이 눈에 띈다.

탄소산업·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45개 사업, 국비 3천774억원을 확보했다. ▲K-Carbon 플러그인 기술개발 사업(255억원) ▲대용량·고출력 무정전 전원장치(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200억원)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사업(164억원) 등의 사업추진으로 신산업 성장동력을 선점해 미래 신산업 도약 기반을 갖춰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강점인

농생명산업수도 분야에서는 42개 사업, 국비 2천233억원을 확보했다. ▲농촌협약(750억원)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193억원)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가 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136억원) 등 스마트 농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조성 분야에서는 ▲국립후백제 역사 문화센터(450억원) ▲청년문화센터(60억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60억원) 등 19개 사업, 국비 839억원을 확보했다. 또, 교육분야에서 ▲글로벌 대학30(1천500억원) ▲교육발전특구 조성사업(450억원) 등 3개 사업, 1천951억원 국비를 확보해 수도권과의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교육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서도 17개 사업, 국비 4,292억원을 확보했다. ▲도시재생사업(94억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70억원) 등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게 됐다.

도는 올해도 국가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한발 앞선 대응으로 1월 현재 85개 사업, 국비 5천618억원의 사업을 발굴한 상태이다. /정소민 기자

## 서거석 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5백만원...당선 무효형

**동료교수 폭행 의혹 부인, 원심 깨고 유죄 판결받아  
 재판부 '서 교육감, 허위 사실 SNS 게시 유권자 판단 왜곡'**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도교육감이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으로 미뤄 그러한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되려 여러 간접사실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

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동료 교수 폭행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후에도 토론회 등에서 '사실 무근'이라는 식으로 부인했다"며 "이후 피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고 밝히며 이같이 판결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서 교육감은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같은 기간 공직 및 공공기관 임용·취업도 할 수 없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과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정식집에서 일어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으나,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후 항소심 법정에서 다시 나와 "양심선언을 하고 싶다"며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교수는 앞선 1심에서의 위증으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10월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다.

/최성민 기자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최고의 '품질' 최상의 '먹거리'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익산 TOP MARU

# 도,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높은 만족도

### 2006년부터 983억 지원, 2만9천27가구 개선...설 명절 전 주거취약계층 애로사항 청취

전북자치도는 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와 서남이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은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은 전주시 차상위세대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필품이 담긴 '행복 꾸러미'를 전달했다.

전북은 2006년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해 전국의 모범사례가 된 사례로, 지금까지 2만9천27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단열재 보강, 고성능 창호 교체, 화장실 및 주방 개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983억원을 투입, 14개 시군 2만9천27가구의 주택



전북자치도는 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으며, 올해도 도내 500가구에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

도 안락하고 쾌적한 보금자리 마련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전북종합사격장, 환경 개선...총 20억원 투입

### 김예지·양지인 선수 활약 방문객 40% 증가, 9월말까지 보수 완료

전북자치도는 방문객 증가와 체험 수요 급증에 대응해 전북자치도종합사격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을 개보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보수 작업은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입해 울타리와 전자표적 장치를 교체하며 오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종합사격장은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일약 스타로 떠오른 사격 김예지, 양지인 선수의 활약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격장을 방문하는 체험객 수는 2022년과 비교해 40%가량 증가했으며,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열린 2023년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증가세는 전북지역의 체험형 관광 활성화와 연결되며 종합사격장의 개보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보수의 핵심 내용은 붕괴 위험이 있는 10m 높이, 100m 길이의 울타리 교체와 함께, 사격 대회 운영의 필수적인



전북자치도는 방문객 증가와 체험 수요 급증에 대응해 전북자치도종합사격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을 개보수한다고 21일 밝혔다.

40개의 전자표적 장치를 교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방문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종합사격장은 10m, 25m, 50m 실내 사격장과 야외 클레이 사격장을 갖춘 종합 시설이다. 일반인도 공기총 10m 사격과 클레이 사격을 체험할 수

다. 체험은 1인당 2만2천원에 제공되며, 10m 사격장은 3천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조영식 도 체육정책과장은 "이번 개보수 작업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 환경을 마련하는 등 관광 명소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도, 국회서 올림픽 유치 및 국가예산 요청 등 정책협의

전북자치도는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및 2036년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북도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과 이같은 내용으로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 자리에서 2025년 전북도 국가

예산 확보는 민주당의 증액 없는 통과에서 불구하고 예산안에 전북예산이 대거 포함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9조2천 244억원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2026년 국가예산도 대거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또 전북도가 추진 중인 2036년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에 계

획을 보고하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는 자체 평가위원회 및 국제위원회의 자체 심사 후 오는 2월 17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심의결한 뒤 오는 2월 28일 후보 도시에 대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선정 투표를 할 예정이다.

/서울=김영목 기자

# 전북도 전역서 올림픽 유치 기원, 도민 관심 '고조'

전북자치도는 21일 익산역에서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에 대한 범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위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익산시 체육회 관계자 및 직원들이 동참해 "도민의 뜻 모아! 힘 모아! 전북의 꿈,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이 적힌 어깨띠를 메고 올림픽 유치의 필요성과 비전을 적극 도민들에게 알리

며 전북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의 뜻과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이번 홍보활동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전북이 가진 가능성을 세계에 알릴 기회"이며 "도민의 성원과 참여가 2월 말 국내 개최 후보 도시 선정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

안 실시한 대한체육회의 현장실사 이후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결정 시까지 전북 유치에 대한 도민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응원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김관영 도지사를 시작으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GBCH' 챌린지를 진행하며 도내 기관장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정혜민 기자

2025년 乙巳年

근하신년

## 회원 서비스 조직으로 변화하는 군산상공회의소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용

# 도소방본부-지역의료센터, 협약...심뇌혈관골든타임 확보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20일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을 비롯한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정읍아산병원 등 7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신속한 처치와 이송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응급환자 이송 및 처치 협력 강화 ▲의료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구급대원 대상 전문 의료 교육 지원 ▲응급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구급대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현 119대응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응급의료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응급의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도,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에 2억 기탁...종합 지원책 가동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21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법사위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법원이 공정성을 의심받은 만한 결정을 해 폭력 사태가 촉발됐고 경찰이 길을 터줬다"는 등의 발언을 해 폭동을 옹호하는 태도를 드러냈다"며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과 국회의원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사태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폭거이자, 사법부 기능을 정면으로 짓밟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에 세워진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이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전북도당은 이어 "중요한 사실은,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 발부와 피의자 이의신청, 체포영장 연장, 체포적부심, 구속영장 발

# 전북형 핵방호 시스템...신산업 육성으로 대응해야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 전북형 핵방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1일 오전 8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 백년포럼' 제24강을 개최했다.

강연자로 나선 남세규 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현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과 북핵 미사일 고도화·고착화로 북핵 위협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모두 북핵 미사일에 대응한 방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북핵 대응 방안으로 Kill Chain(핵·미사일 발사 움직임 선제적 타격), KAMD(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요격하는 미사일방어), KMPR(핵·미사

일 공격 시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로 구성되는 한국형 3축 체계(K-TRIAD)를 압도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1만 발의 재래식 미사일을 배치, 1발의 핵무기 공격을 받으면 200발의 미사일을 일제 사격해 대응하는 일만양탄(一萬養彈) 전략을 제시했다. 지자체 대응 방안으로는 핵폭발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그에 맞는 구체적 핵방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다양한 요인으로 글로벌 안보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전북이 전북형 방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관 기자

부 등 총 5차례에 걸쳐 법원이 적법하게 영장을 내줬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조 의원은 전형적인

철새정치인, 기회주의자, 헌법 유린으로 호남 최악의 정치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고 힐난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 우범기 시장, 시민들과 시정운영방향 공유

## 호성동 시작으로 전주 발전을 위한 시민들 목소리 청취 나서...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첫 일정 시작

우범기 전주시장이 35개 동을 찾은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첫 일정으로 도·농 복합동인 호성동을 찾았다.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전혁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시정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범기 시장은 21일 호성동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호성동 통장과 주민자치협의회, 기타 자생단체 임원진들과 마주하는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첫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행사는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동 현황 보고 ▲시정운영방향 공유 ▲시민과의 대화 등 순으로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다.

정문구 동장은 호성동을 도·농 복합동으로 도시의 모습뿐 아니라 농촌의 모습까지 공존하는 지역으로 소개했다.

동부대로를 끼고 있는 호성동에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전주의 큰 꿈을 실현할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로 언급했다.

시는 지난 8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공개

한 2025년 시정목표를 호성동 시민들에게 공유했다.

올해 시는 시정목표인 '확실한 변화! 함께 여는 전주의 큰 꿈!'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민생경제 위기 극복(민생) ▲미래 광역도시 대전환(도시) ▲강한 경제 일자리 도시(경제) ▲글로벌 으뜸 문화산업(문화) ▲일상 속 신바람 복지(복지)의 5대 분야, 18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우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주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및 지역 현안, 주요동향 등에 대해서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시민들은 완주로 구간 인도 개설 및 소양천변로 가로등과 CCTV 설치, 지행당길에서 동부대로로 진입하는 불법 좌회전 문제 등 다양한 현장 민원을 제기했다.

또 다른 시민은 호성동의 도시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해왔던 건지산의 공원들이 공원일몰제로 인해 공원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즉시 시정 가능한 부분은 즉각 조치하고, 예산이



우범기 전주시장이 35개 동을 찾은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첫 일정으로 도농 복합동인 호성동을 찾았다.

수반돼야 하거나 장기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갈 방침이다. 또 해결 여부 및 해소 방안을 소중한 의견을 제시한 시민에게 전달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우 시장은 이날 첫 일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전주 35개 동을 차례로 방문해 시민들과 만남을 이어간다. 전주 발전을 위해 시장과 시민이 만나는 동 순방 일정은 오는 24일 서신동

으로 이어진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025년도에는 그간 민선 8기에서 준비했던 전주의 대전혁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상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지킬 것을 확실히 지키고 바꿀 것은 과감히 바꾸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미래산업 육성 및 실물경제성장' 민생 회복 돌파구로

## 미래산업 육성 통한 경제 거점도시 도약맞춤형 지원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

전주시가 국내외의 정세 불안과 실질 소비저축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2025년 을사년(乙巳年)에 미래산업 육성과 실물경제 성장을 민생 회복의 돌파구로 삼기로 했다.

전주시 경제산업국은 21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미래산업 육성과 실물경제 성장으로 민생 회복'을 비전으로 한 5대 전략을 발표했다.

민생 회복을 견인할 5대 전략은 ▲3대 주력산업(수소,탄소,드론) 혁신을 통한 차세대 산업 생태계 구축 ▲미래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경제 거점도시 도약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 일자리 창출과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 강한경제 견인 ▲소상공인 안정 및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으로 실물경제 회복 등이다.

첫 번째 전략인 '3대 미래산업(수소,탄소,드론) 혁신을 통한 차세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는 수소경제 선도 도시 도약과 탄소산업 거점도시 도약, 글

로벌 드론 선도도시 도약을 집중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수소경제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수소 인프라를 활용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수소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탄소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달출루선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확장 및 질적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시는 '미래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경제 거점도시 도약'을 위해 디지털 분야 생태계 활성화, 지역 특화 차별화된 과학문화 복합공간 조성, 첨단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첨단바이오 기업 진화 생태계 구축을 주력해서 진행한다.

디지털 분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시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 가상융합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 신산

업 육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과거부 '디지털 혁신거점' 공모에 적극 대응해, 지역 산업과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사업 고도화, 노후거점산업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추진, 우수유망기업 유치 기반 마련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 추진과 투자 활성화와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네 번째로 지속 가능 일자리 창출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공공 일자리사업 추진, 창업기업 성장 발판 마련, 상생 노사관계 구축으로 강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업, 금융, 문화·관광·체육,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특히, 탄소융합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 상생 기반의 탄소 융합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해 내실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올해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확대 등 민생지원 강화,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 등 소상공인 안정과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힘을 기울인다.

임숙희 전주 경제산업국장은 "올해 고물가와 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접근과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민생 안정 최우선, 전주시, 복지지원 확대

## 복지사업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6.42%인상, 역대 최대

민생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전주시가 2025년 저소득·위기가구 등에 지원하는 복지지원을 크게 늘린다.

전주시는 올해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2015년 이후 역대 최대인 6.4%(4인기준)가 인상된다고 21일 밝혔다.

또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도 대상자의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실직·사망·중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기존 167만 1334원에서 179만 4010원 이하로, 금융 재산은 822만 8000원 이하에서 839만 2000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전북형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새롭게 시행돼 기준 중위소득 75%~85% 구간의 저소득 위기가정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전주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발전협의회, 취약계층에 400만원 전달

전주발전협의회(회장 장순식)는 지난 20일 월례회에서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성금 400만 원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전주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등에 전달 예정이다.

장순식 회장은 "설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조

금이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발전협의회는 전주시 효소동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등에 전달된 1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매년 지속적인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전통시장 민·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리는 전통시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펼쳤다. 전주시는 21일 남부시장과 모래내시장 등 전통시장을 찾아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점검은 윤동욱 부시장을 비롯해 재난안전과, 민생사회적경제과, 안전·혁신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지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병행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화

재 알람 시설 상태 점검 ▲소화기 등 소방 시설의 적정 비치 여부 ▲소화전 및 방화 셔터 정상 작동 여부 ▲불법 적치물 제거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이 포함됐다.

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전통시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상인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선다.

윤동욱 전주 부시장은 "합동점검을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 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상인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설 연휴 30일까지 '특별교통대책 추진'

##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및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정비·교통대책 상황실 운영

전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연휴기간 동안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성묘객,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교통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시청과 양 구청에 교통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당장 전주시 교통정보센터는 교통흐름 관측용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차량 이동상황을 파악하고, 교통정체 지역의 탄력적 신호 운영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장애인과 오지마을 주민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정상 가동된다. 장애인 콜택시인 이지콜의 경우 주·야간 상관없이 24시간 운영되며, 벽지·오지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바로온도' 25대가 정상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시는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료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37곳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무료개방 기간은 설 연휴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이다.

무료로 개방되는 공영주차장은 ▲건산천 제1주차장(77면) ▲서신동(131면) ▲노송천(70면) ▲중화산2동(75면) ▲신시가지 흥산광장(120면) ▲효천지구 주1주차장(44면) ▲만성지구 주4주차장(26면) ▲만성지구 주7주차장(65면) ▲평화2동

(13면) ▲에코시티 주12주차장(52면) ▲하가 리드빌딩(23면) ▲종합경기장(638면) 등이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전주를 찾는 귀성객들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만큼 무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종 교통법규와 주차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자치도, 설 연휴 24시간 응급진료체계 가동

전북자치도는 설 연휴 전후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응은 연휴 기간 동안 보내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 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21개소를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하며 각 기관에 전

담책임관을 지정해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주요 의료기관의 진료 부담을 경감하고 경증 환자들을 원활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평균 문 여는 병·의원 499개소와 약국 313개소를 운영할 계획이

다. 이는 지난 추석 연휴 대비 1.3배, 지난해 설 연휴 대비 2.2배 확대된 규모다.

또한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운영되며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에서도 비상진료를 실시해 도민들이 불편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는 소방구급상황관리센터(119),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도 및 시군 보건소나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 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이나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은지 기자

# 전북도, 아중호수 급경사지 정비사업 점검 강화

전북자치도는 21일 전주시 아중호수 급경사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해예방사업 추진상황 및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사업비 70억원(군특 35억원, 지방비 35억원)을 투입해 낙석 및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비탈면을 안전하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특히 아중호수 일대의 관광명소화 사업추진으로 방문객과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됨에 따라, 급경사지 정비와 기존 도로의 급커브 구간 확장 등 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오택림 도민안

전실장과 전주시 국승철 건설안전국장 등이 참여해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장 전체를 둘러보며 건설현장의 안전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명절 이후 기온 상승으로 얼었던 물이 녹으면서 낙석 사고 발생 가능성이 우려해 안전헬스 상태를 점검하고 상반기 중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독려했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 2월부터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공사 현장, 급경사지와 같은 재해위험지역 점검을 실시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해민 기자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경증 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실을, 호흡기환자는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발열클리닉, 호흡기질환 협력병원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 도, 상반기 재정 63.5% 신속 집행 민생경제 회복

## 도, 실국 보고회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중점 추진...행정부지사 중심 신속집행추진단 가동 1분기 35% 목표...대규모 시설사업·7개 통계목별 집행관리 등 전략적 접근

전북자치도가 올 상반기 내 예산의 6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6~1.7%로 하향 전망됐으며 전북의 12월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전월 대비 대폭 하락하는 등 탄핵정국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된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집행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도는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실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을 비롯해 실국별 추진계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등이 중점적



전북자치도가 올 상반기 내 예산의 60% 이상을 신속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으로 이뤄졌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신속 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실국 및 시군 집행·점검을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해소 지원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올해 1분기에 전체 예산의 35%를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고 상반기까지는 63.5%를 집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매주 자체 점검을 통해 집행 부진 원인을 파악한 뒤 이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시설비, 출연금,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간담금 등 주요 7개 통계목을 집중 관리해 신속한 사업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현 경제상황에서 신속한 재정집행이 지역 경제와 민생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각 실국은 효율적으로 재정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 전북도, 소비자 피해구제 등 운영기관 모집

### 소비환경 변화 발맞춘 적극적 소비자 행동 강화

전북자치도는 '2025년도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사업'을 추진할 운영기관을 오는 2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비자 역량 강화, 소비자 정책 협력,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도내 소비자 관련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소비생활이 고도화되고 시장이 새로운 제품이 빠르게 등장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품 정보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마련했다.

도는 2014년부터 '소비자 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해 매년 20~30명의 소비자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고령자, 어린이, 다문화 이주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비자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군 순회 이동상담실을 운영해 사회복지관, 전통시장, 축제장 등에서 소비자상담센터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방문·전화권유·통신판매업 등 특수거래 분야에서 소비자감시단이 매년 약 2만여 개소를 모니터링하며,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제 실태조사 및 체육시설업 가격표제 간담회 등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 강화를 위한 제안 사업도 자율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재영 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인지 기자

#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코람코 자산운용' 전주사무소 개소

## 도, 국민연금공단과 협력으로 유치 성공...전주사무소 개소 계기로 전북 금융산업 발전 획기적 전환점

부동산 전문 운용사이자 국민연금공단 자금 운용사인 '코람코 자산운용'이 21일 전주에 본사 외 첫 지방사무소를 개소하며, 전북 지역 금융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람코 자산운용'은 2010년 설립돼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모회사 '코람코자산신탁'과 함께 총 3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부동산 전문 운용사다.

최근에는 '더 익스체인지 서울'과 '여의도 농협캐피탈빌딩'을 연이어 매입하며 지난해 10월에는 국민연금공단의 부동산 대출형 펀드 위탁 운용사로 선정됐다.

이날 개소식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박형석 코람코 대표이사 등 20여명이 함께 개소를 축하하고 전북



부동산 전문 운용사이자 국민연금공단 자금 운용사인 '코람코 자산운용'이 21일 전주에 본사 외 첫 지방사무소를 개소해 전북지역 금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도는 그간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

해 왔으며, 2019년 SSBT은행 및 BNY Mellon은행 전주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블랙스톤, 하인즈 전주사무소 개설 등 총 12개 금융기관이 도에 이전한 바 있다.

이번 코람코 자산운용의 전주사무소 개소로 운용 자산 약 30조원 규모의 코람코가 전주에 자리 잡게 돼, 추가 금융기관들의 전북 이전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코람코의 전주사무소 개소로 전북이 금융특화도시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며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2027년 말 준공 예정인 전북금융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국제금융도시로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

## 대한건설기계협 안춘엽 회장, 전주시에 500만원 전달



통해 이뤄졌으며, 상품권은 전주시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안춘엽 회장은 "모두가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며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풍족한 설 명절을 보내셨으면 한다. 올 한해는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21일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춘엽 회장(한일종합중기 대표이사)이 전주시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해 달라며 지역사랑상품권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안춘엽 회장이 지난해 가입한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를

안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상임위원,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국제로타리3670지구 전일로타리클럽 회장, 전북교통방송국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전주대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 전북대학교 최고위과정 총동문회장 등으로 역임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최준호 기자

## 전북은행, 이벤트 우대금리 '새해출발 특판 예금' 출시

### 최대 연 3.20% 금리 제공...2월 말까지 한정 판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새해맞이 이벤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25년 새해출발 특판 예금'을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판매하는 이번 '25년 새해출발 특판 예금'은 가입기간 6개월에 최고 연 3.20%(기본금리 연 2.90%) 금리를 제공하며, 총 판매한도는 3,000억원으로 판매한도 초과 시 해당 초과 일까지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일반법인으로 가입액은 계좌당 100만원 이상 고객당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최고 연 0.30%가 제공되는 이벤트 우대금리의 경우 개인고객이 해당 예

금 가입 시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면 연 0.1%, 법인고객은 가입고객 전원에게 연 0.1%가 제공된다. 또한 해당 예금 신규 익월부터 3개월간 수시입출금계좌의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 0.2%가 제공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고객들과 희망찬 시작을 함께 하고자 이번 특판 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 전북자치도,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탈솔루션 센터로 기술력 도약

## 전주시 친환경첨단복합산단에 1천157㎡ 규모 센터 조성...총사업비 200억, 국산 탄소제품 경쟁력 강화 판로개척 지원

전북자치도가 총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탈솔루션 센터'를 구축해 국산 탄소제품의 기술력과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판로개척에 나선다.

이 사업은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협력해 기획한 사업으로, 2029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총사업비 200억원 중 국비 105억원과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각각 47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전주시 친환경첨단 복합산단단지 내에 1천157㎡(350평) 규모의 '토탈솔루션 센터'를 조성하고 검사 및 인증평가를 위한 장비 42종을 구축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탄소제품과 관련된 시험·평가, 검사, 인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추진해 온 '탄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 국산 탄소제품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기술 개발부터 제품 인증까지 전주기 지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탄소제품뿐 아니라 이차전지, 수소, 차세대 모빌리티 등 전북의 첨단산업 제품 지원으로 확대, '소재-중간재-부품-응용제품-시험인증'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완결형 생태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 개발에서 표준 개발, 제품 인증까지 통합 지원해 국내 탄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내 탄소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 전주시, '25년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지 선정

올해 가을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전북 전주시를 찾아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한다.

전주시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실시한 '2025년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이하 박람회) 개최지 공모'에서 최종 전주시가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연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박람회 개최 의지, 지역의 민간협업 기반 등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해 최종 개최지를 선정했다. 이로써 시는 한국연대와 함께 제7회 박람회를 준비, 개최한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스캐막식(정부포상식, 우수사례 발표 등) 조정책홍보관 △사회적경제 제품 전시·판매부스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회적경제 프로

그램 △문화예술 공연 △지역관광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및 구성을 선보일 구상이다.

특히 시는 전국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 유관단체, 일반시민 등이 전주를 방문해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토록 계획한다.

이를 위해 시는 2월 중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추진단을 구성해 박람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이어간다.

이와 관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사회적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국 단위의 민·관이 협

업하는 행사다.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사회적경제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협업을 통한 전국적이면서도 지역적인 박람회를 지향하며 사회적경제 분야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회까지 이어져 왔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주시 사회적경제박람회를 10회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2025년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도 민·관이 협력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태 기자

## NH농협은행 전북, 설맞이 2천만원 상당 사랑의 쌀 기탁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20일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전북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령의일매)에 2천만원 상당의 쌀 8,000kg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훈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 노진선 사무처장 등이

## 전북농협 새해 첫 전략회의...농업소득 3천만원 결의다져



리 방안 등에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소득 3천만원 달성의 원년을 만들기 위해 농축산물의 수취가격 제고,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토의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20일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전북 14개 시군지부장들과 함께 2025년 첫 전략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부장들과 함께 전북본부의 중앙회, 경제지주 단장들이 모두 참석해 농업인, 농업 그리고 농촌의 발전을 위한 여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2025년 전북농협은 '믿음직한 동반자, 전북농협'이 되는 슬로건 아래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참석해 이웃사랑의 쌀로 지역사회에 희망을 불어넣었다. 기탁된 백미는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

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최준호 기자

# 전북농촌유학 '인기'... 3년새 7배 이상 급증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이후 '시골 작은 학교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힘 쏟은 결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학년도 농촌유학생 모집 결과 신규 89명과 연장 103명 등 총 192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한 2022년 27명이었던 전북 농촌유학생은 2023년 84명, 2024년 163명, 올해 192명으로 3년새 7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학교도 6개교에서 29개교로 5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전북 농촌유학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신규 유학생 89명은 경기 32명, 서울 21명 등 수도권권을 포함해 광주 10명, 전남 7명, 인천 5명, 부산 4명, 충남 3명, 대전·대구·울산 각 1명 등 다양한 지역 출신으로 구성됐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체류형이 80명, 유학센터 등을 이용하는 유학센터형이 9명이다.

전북 농촌유학에 대한 관심은 시골 작은 학교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전북 교육청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올해만 해도 농촌유학 참여 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다. 가족체류형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당 월 30만 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는 학생 수에 따라 1명 30만 원, 2명 40만 원, 3명 50만 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별 특색있는 프

그램 운영비도 기존 학교당 1200만 원 일괄 지원에서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학생들에게 한층 더 풍성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농촌 지역 활성화와 더불어 학생들의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현대무용 유빈댄스, 공개오디션 개최

"무용계의 새로운 흐름을 함께 만들어갈 예술가들의 지원 기다린다."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무용 단체 유빈댄스(UBIN DANCE)가 올해 단원으로 함께 활동할 무용수 공개오디션을 개최한다.

오디션은 내달 16일 오후 1시, 전주시 우진문화공간에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총 6명이며, 만 19세 이상으로 2025년 동안 유빈댄스의 모든 사업 과정 및 공연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는 움직임 수업, 즉흥, 면접 등이 진행되며, 오디션 1시간 전부터 스튜디오에서 개인 준비운동이 가능하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최종 합격자는 유빈댄스의 2025년 단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움직임 리서치 및 안무 워크숍 교육을 제공받는다. 또한, 활동비도 지급되어 무용수들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구글 신청 링크 (<https://linktr.ee/ubindance>)를 통



해 신청서와 자유양식의 개인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유빈댄스는 현대무용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탐구할 인재를 발굴하고, 전주 지역을 기반으로 무용계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나현 유빈댄스 예술감독은 "이번 오디션을 통해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무용수를 만나기를 기대하며, 무용계의 새로운 흐름을 함께 만들어갈 예술가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 '2025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회' 개최

특수교육 정책 방향·주요 정책 안내...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강화·체계적인 특수교육 지원에 최선 다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1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내 특수교육 교원 및 교육전문직 350여 명이 참석한 이 설명회는 전북교육청의 2025년 특수교육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주요 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특수교육을 10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선

정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특수학급 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강화를 위한 협력교사 지원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결·보강 강사 지원 ▲통합교육 협력모델인 정다운 학교 확대 ▲통합교육 연구회 운영 등이 있다. 특히 장애학생 인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권역별 행동중재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의 진로진학 지도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전공과 및 대학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생활 체험활동을 확대 운영한다.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내 장애 공감 문화 확산에도 앞장선다. 전북특수교육원 설립도 올해부터 추진된다. 전북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역

신을 주도할 중심 기관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특수교육 관련기관을 연결하는 허브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학생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을 강화하고, 장애공존 통합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영유아 단계부터 장애특성, 교육 요구에 따른 체계적인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군산대 창업지원단-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업무협약

국립군산대학교는 창업지원단(단장 지석근)과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오충섭)는 지난 20일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로컬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로컬 관광콘텐츠와 창업생태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협력 모델을 통해 전북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로컬 관광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예비 소상공인 창업자 및 기술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청년 창업자를 위한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를 포함한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유통 및 판로 개척 등 로컬 콘텐츠 창업기업의 전방위적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대 양오봉 총장,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챌린지 동참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지난 20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지원하는 'GBCH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GBCH'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구호인 'Go Beyond, Create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의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도

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이번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참여했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의 하계올림픽 유치는 가장 한국적인 지역에서 한국의 멋과 맛, 혼을 전 세계에 알릴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양오봉 총장은 릴레이의 다음 주자로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과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을 지명했다. /최성민 기자



##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평가 6년 연속 '우수'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사업 성과평가 최고등급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2024년 사업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밝혔다. 이로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기준으로 4년 연속,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기간까지 포함하면 6년 연속 최

고등급을 달성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을 대상으로 ▲원스톱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활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사

업 만족도 제고 및 취업준비도 향상도 3개 영역, 12개 지표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전주대학교는 지역청년 고용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취업 지

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지난해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진입하여 학년별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에는 '졸업생 특화 시범사업' 운영 대학으로 전국 8개 대학 중 하나로 선정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신숙경 교수는 "앞으로도 지역 청년과 재학생, 졸업생들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 귀성길 장거리 운전 주의사항

## ⚠ 장거리 운전 주의사항

**출발전, 차량점검 필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필수!**

**졸음 운전 대비!**

출발전 장거리 운전시 주의사항 확인하시고, 따뜻하고 행복한 설 연휴 되세요



# 고창군, '구름골 자연휴양림 사업' 순항

산림레포츠 체험시설·목재문화체험장 등 조성...올 연말 준공

고창군이 운곡습지 초입에 산림 휴양과 레포츠 시설 등을 도입해 '산림휴양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운곡습지 초입의 아산면 용례리 일원 56ha에 '구름골 자연휴양림 사업'이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숲속야영장, 트리하우스, 숲속놀이터, 산책로와 탐방로가 설치되는 고창군 최초의 자연휴양림이다.

특히 고창군은 휴양림 조성으로 '산림휴양테마파크'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내년까지 로프·네트·레이를 활용한 산림레포츠 체험시설과 목재문화체험장(목공체험·놀이·전시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자연과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산림·휴양 트렌드에 부합하는 특화 공간을 조성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고급 목재형 이색 숙박시설로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휴양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창군이 운곡습지 초입에 산림 휴양과 레포츠 시설 등을 도입해 '산림휴양테마파크'를 조성한다.

구름골 산림휴양테마파크가 완성되면 운곡람사르습지, 북분자유원지, 골프존카운티선운, 선운산도립공원, 고인돌유적지 등 다양한 문화·생태관광시설과 연계한 명품 관광코스가 만들어진다.

김종신 고창군 산림복지과장은 "구름골 산림휴양 테마파크는 주민과 관광객

들에게 여유로운 휴식과 새로운 레저 경험을 제공하고, 동시에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휴양 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공약 완료율 63.8%...추진상황 점검 나서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군민과의 약속 점검...5대 비전 실현 논의

부안군은 지난 20일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지난해 11월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제2기 공약이행평가단원 25명과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적극행정, 소득을 높이는 풍요로운 지역경제, 지구촌 사람이 모이는 문화관광, 웃음과 희망이 함께하는 교육복

지를 목표로 총 4개 분과에서 80개 공약사항 중 변경 심의가 필요한 7건과 추진 중인 42건의 실적 및 현황을 점검하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 민선 8기 5대 비전인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더 나은 농촌 건강한 자족도시,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도시, 사람 중심의 살고 싶은 도시, 도약의 땅 새만금 배후도시 등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 행복up 사업 추진, 부안형 수소산업 플랫폼 확장, 구항마리나항만 연계 크루즈 기항지 조성,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주요 공약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민선 8기 공약사항 80개 중 51건이 완료되어 공약 완료율은 63.8%를 달성했으며, 나머지 29건 역시 임기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권익현 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라며 "군민 제안이나 건의 사항을 수렴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베스트 디자인 어워드 공공디자인부문 '대상'

제30회 코리아 베스트 디자인 어워드서 영예...'지평선 생명도시 김제' 우수성 인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1일 도시브랜드(BD)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가 제30회 코리아 베스트 디자인 어워드(KOREA BEST DESIGN AWARD) 공공디자인부문에서 대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30회 코리아 베스트 디자인 어워드는 지난 18일 충남 아산시에서 개최됐으며 사)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주) 주최하고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공동후원한 행사다.

지난 1995년 베스트 브랜드&패키지 디자인 어워드라는 명칭으로 시작해 30년간 개최돼 왔으며, 제품 및 공공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브랜드 및 디자인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어워드다.

지난해 개발된 김제시 도시브랜드(BD)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는 김제(GIMJE)의 이니셜 G와 J를 결합해 하트와 새색 모양



이라는 이중적 이미지로 표현했으며, 황금색 계열은 지평선의 황금벌판을, 초록색 계열은 생명이 싹트는 대지를, 파란색 계열은 수평선의 새만금을 상징해 지평선 너머 새만금으로 나아가는 김제시의 미래성장비전을 나타낸다.

김제시만의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이 대내외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시는 다각적 홍보와 활용을 통해 김제

브랜드에 대한 시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청 이미지를 드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평선의 고창, 김제시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김제시 브랜드의 위상을 높여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자전거 친화도시로... '그란폰도 대회' 개최

고창군이 오는 4월 싱그러움 봄을 맞이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전거 친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그란폰도 대회를 개최한다.

'고창유네스코 그란폰도 대회'는 약 120km에 달하는 고창군, 영광군, 장성군 일원 도로를 따라 약 2000여명의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경기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란폰도(granfondo)는 이탈리아로 '크게 타기' 또는 '위대한 경주'라는 뜻으로 자전거 동호인들의 비경쟁 도로사

일 경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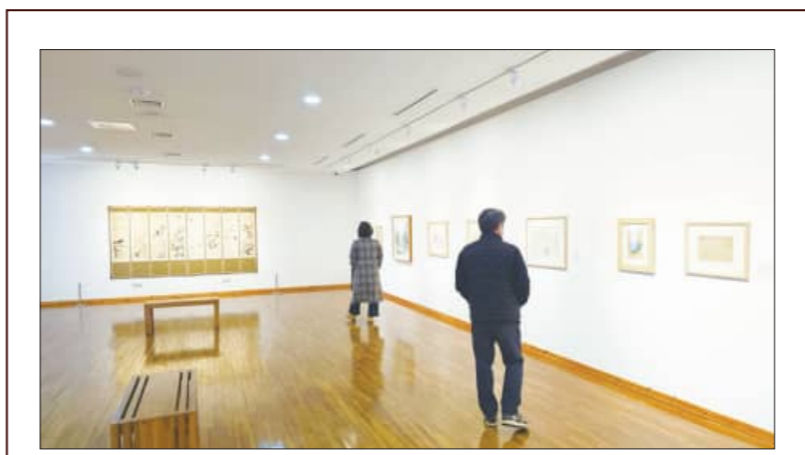
고창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자전거 사용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정경 자연 구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아름다운 봄속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가 동호인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고창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전거 모범도시'로 선정됐으며 자전거 모범도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고창군은 자전거 구

입 보조금과 문화시설 임차료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고인돌 유적지·고창읍성·석정온천 관광지를 잇는 자전거 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대회는 고창의 자연과 문화를 자전거로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고창의 대표적 봄 축제인 고창청보리밭 축제와 병행해 봄의 정취를 고창에서 즐기고, 참가자 간의 화합과 도전을 응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벽천미술관, '봄' 기획전시 열어

2025년 첫 번째 기획 '봄' 자연의 생명력...4월 20일까지

김제시 벽천미술관은 2025년 올해를 시작하며 첫 번째 기획전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벽천미술관 개관 당시 기증받은 작품 22점을 엄선해 '봄, 자연의 생명력을 꿈꾸며'라는 주제로 오는 4월 20일까지 개최한다.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의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삭막한 겨울이 화사하고 초록색으로 덮인 봄으로 바뀌고, 햇볕이 뜨거

운 여름이 울긋불긋한 가을로 변하면 자연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화폭에 흐르는 감정의 기조는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의 움직임과 생명력에 관한 내용으로 따뜻하고 위로하는 시선을 그려내고 있다.

강인한 생명력이 움트는 봄을 수식, 수백 번의 붓질, 혹은 간결한 선으로 그려낸 스케치 등을 통해 간결하게, 때론 간결하게 표현했다.

전시 구성으로는 산수화, 풍경화, 스케치 등 총 22점을 전시했다.

그중 화조팔폭병풍은 벽천미술관 최초 공개 작품인데, 은은한 수묵담채로 꽃과 새를 표현한 작품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전시를 관람하며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풍경과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의 움직임과 생명력에 대한 작가의 감정을 감상하며 힐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2월 17일까지 '고창농촌개발대학' 신입생 모집

고창군이 미래농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창농촌개발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육생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17일까지이며, 4개 정규과정, 1개 특별과정 총 5과정 165명을 모집한다.

정규과정(4개과/150명) ▲농업리더과(40명)는 농업인의 전문기술 교육 및 자기개발 능력 향상을 통한 농업리더 양성 ▲수박·멜론과(40명)는 고품질 수박, 멜론 등 시설작물의 명품 브랜드화 ▲북분자과(40명)는 북분자 재배농가 육성 ▲시스마트농업과(40명)는 AI 농업적 활용을 통한 6차산업의 고도화, 특별과정(1개과/15명) ▲음료베리에이션과(15명)는 고품질 특산물을 활용한 과일청 음료 제작을 목표로 운영된다.

고창농촌개발대학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강의, 실습 및 토론,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창농촌개발대학의 전문농업 분야의 이론과 과학영능 실천 교육이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위생관리 특별 점검 실시

부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118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축산물 위생관리(축산물 이력제 특별 단속)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은 축산물 위생적 취급 및 운반 기준 준수 여부 등의 위생 점검과 함께 수입 축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 행위, 축산물 이력제에 따른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는 관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령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권오범 축산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의 위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반을 운영해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부안군, 로컬푸드·온라인 쇼핑몰서 특판행사 진행

부안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2025년 설맞이 특판행사를 지난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과 행복장터, 온라인 쇼핑몰 '덧밭할매몰'에서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등으로 구성된 약 60여종의 설 선물세트를 로컬푸드 소비자 회원에게 20~30%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또 설 선물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무료 택배 서비스가 제공돼 비용 절감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할인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치솟는 물가 속에 소비자들이 알뜰하고 만족스러

운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특판행사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안겨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품질 높은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은 이번 설맞이 특판행사 외에도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과 판매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사회복지시설 방문해 격려 및 위문금 전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21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명절 인사를 나누며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소외된 계층과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명절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정 시장은 김제노인종합복지관, 김제시 장애인복지관, 요한의 집 등 총 6개소를 방문해 시설 내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용자들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사항을 청취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정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모두가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7명에게도 위문금을 전달하며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역사는 위대한 유산이 됐고, 앞으로도 지키고 계승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창군, '어르신 경로목욕·이미용비' 설 명절 전 지급

고창군이 '경로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로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금'은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대표 노인복지 공약사업이다. 군은 올해 군비 12억원을 투입해 75세 이상 노인 약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상품권 10만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이밖에 노인복지 정책으로 '마을주치의사제', '임플란트·틀니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설 전에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을 해서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청결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침체된 지역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사랑장학재단, 지평선학당 개강식 개최

지역 인재양성의 산실,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은 지평선학당이 지난 20일 수강생 120여 명과 학부모 및 종로아카데미 강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평선학당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개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2025년 지평선학당을 운영계획과 운영진, 강사 소개에 이어 수강생의 학력 수준 향상을 위한 학사일정,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지평선학당은 주 4회에 걸쳐 중학교 2학년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국어,영어,수학 주요 과목 및 비교과 수업까지 방과 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입시정책의 변화에 대비해 1:1 상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강민정(주)종로아카데미 책임부원장은 "올해도 철저한 학사운영은 물론 교내 교육 현장에서 다져온 노하우로 수강생의 학력 수준을 향상시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성주 이사장은 "지나해 좋은 성과를 거둔 종로아카데미가 다시 운영체제로 선정돼 기대가 크다"며 "지평선학당에 입학한 수강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김제를 빛내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남원시, 공공일자리사업 대폭 확대

## 올해 총 35억 투입 674명 공공일자리 제공...청년인턴 지원 추진 대학생 일경험 제공...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자체예산 3억 확보, 지속 추진

남원시는 2025년 공공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해, 민생경제를 극복하고 내수경기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청년층 실업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발굴한다. 1차 추경 시 2억 3천만원을 증액 확보해 올해 총 35억원, 674명에게 공공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고, 국가 일몰사

업이었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자체예산 3억원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4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지역 청년들을 위한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예비 취업 준비생과 미취업 청년들 40명에게 6개월간의 실무경험을 제공해 직장 적응력을 높이고, 방학기간을 활용한 대학생 일자리사업으로 학비

마련 등을 위한 단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대학생 190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국비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다. 퇴직 이후 경제활동이 필요한 50-60대 중·장년층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5개분야 12명 일자리를 발굴해 진행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강천산 군립공원 '한국관광 100선' 선정

## 계절별 비경 매력, 맨발산책로 힐링 명소로 인기...오토캠핑장 등 편의시설 확충

순창의 대표 명소인 강천산 군립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5-26 한국관광 100선'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며 전국적 명성을 쌓아온 강천산은 2015-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순창군의 대표 명소인 강천산 군립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강천산은 계곡을 따라 맑은 물줄기가 흐르고, 웅장한 기암괴석과 절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전채의 비경을 자랑한다. 특히 120m 높이에서 장쾌하게 떨어지는 구장군 폭포와 병풍처럼 펼쳐진 병풍폭포는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자연이 빚어낸 장관을 선사한다. 아울러, 강천산은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봄에는 신록이 물들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이 즐거움을 주며, 가을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애기단풍이 찾아오고, 겨울에는 하얀 설경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또 다른 강천산의 매력은 왕복 5km에 이르는 맨발산책로다. 도시생활에 지친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맨발로 자연을 직접 느끼며 몸과 마음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새롭

게 조성된 강천산 오토캠핑장은 일반 야영장 11개면과 개수대, 남녀 샤워장, 화장실, 2층 휴게실, 모래놀이터 등 편의 시설이 완비돼 있다. 또한, 캠핑장이 운영객에게는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가 무료로 제공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탄탄한 재정 '주목'

완주군이 대규모 국제 감소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을 활용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 그 비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완주군의 인구는 10만 명에 달해 투입되는 규모도 300억 원 규모로 상당하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그동안 완주군은 테크노밸리2산단 미분양에 대비해 기금을 적립해 왔다. 2024년 말 적립액은 461억 원에 달한다. 민선8기 들어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테크노밸리2산단 분양률이 급상승해 완판을 앞두고 있어 통합재정안정

화기금을 활용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완주군 세입은 기업 유치와 인구 증가에 힘입어 4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탄탄한 재정운영의 기반이 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가 없을 경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난예비비 등을 활용해야 하지만 이 경우 근거 조례 및 정부승인이 필요하다. 지방채 발행도 방법으로 거론되지만, 이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의 조달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에 정부승인이 불투명하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경기침체 적 시해소라는 민생안정지원금 취지에도 맞지 않을 수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군은 오늘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첫날과 이틀 날인 22일부터 23일은 마을 경로당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지급한다. 직장인들을 위해 주말인 25일과 26일에는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센터 11개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원금을 배부한다. 선불카드도 지급되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3월 31일까지 지급하며 사용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완주군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체계적인 기금 관리와 적극적인 기업 유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 순항...시민공유공간 조성

남원시와 전북대학교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 사업은 2023년 11월 전북대학교가 선정된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하나로, 폐교된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재생을 통해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를 설립한다. 이에 외국인 학생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K-컬처, K-커머스&이코노미 2개 학부를 신설해 학부당 150명씩 총 1,200의 유학생을 유치하고, 외국인 학생 및 산업인력 등을 대상으로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 지역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한국어학당 운영하며,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타운을 조성해 남원 특화산업 분야 기업 및 연구소 등이 들어설 전북특별자치도 동남권 최대 규모의 창업 복합 단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개교를 위해 서남대 캠퍼스를 매입(2024년 3월)하고 재정비를 완료했다. 방치된 건축물 철거, 수목 정비, 도로 재포장, CCTV 및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전북대는 2025년 캠퍼스 리모델링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집중할 예정이

다. 유학생들은 초기 전주캠퍼스에서 시작해 2027년 남원캠퍼스로 이동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시민 개방을 위해 캠퍼스 내 도시숲 공원, 울치천 복원, 산책로와 스탠드 정비 등 시민 공유공간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강화

## 결혼 여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로 대상 늘려

남원시보건소는 2025년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임신 및 출산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검진비 지원 대상을 기존 부부에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로 확대했다. 또한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별도의 비자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15-19세의 미성년자도 12명 일자리를 발굴해 진행한다. 지원 횟수도 기존 평생 1회에서 3회로 확대해 29세 이하, 30~34세,

35~49세 등 주요 주기별로 1회씩 인당 최대 3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은 회당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검사 항목으로는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 검사(AMH)와 초음파 검사,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정자 정밀 형태 검사)이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은 남원시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에서 신청 후 의뢰서를 발급 받고 지정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진 후 1개월 이내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의회,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생필품 전달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21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번 위문 방문은 지역 내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성심너싱홈 ▲실로암요양원 ▲삼례노인복지센터 ▲삼봉 효앤정 데이케어센터 ▲(재)가난한이들의 작은자매회 ▲베데스다의집 등 총 6개 시설을 차례로 방문했다. 의원들은 시설 입소자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의원들은 시설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종사자들이 전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은 군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다 나은 복지 환경 조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 순창군, 설명절 장보기 행사 개최...전통시장 활기

순창군은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맞이 장보기 행사'와 '물가안정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최영일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200여 명과 관내 30여개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총 400여 명이 참여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렀다. 이날 최 군수는 제수용품 구매하며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는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격려하는 한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번 행사와 함께 진행된 물가안정 캠페인에서는 장바구니를 시장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순창군은 1월 한 달 동안 순창사랑상품권의 개인별 월간 구매 한도액을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역 상권 살리기에 적극 매진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대형 페이퍼아트展 선봬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은 2025년 첫 전시로 이달 21일부터 '낮익은 도시, 낯선 이야기'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페이퍼 아티스트 이지희 작가가 제작한 아시아와 유럽, 남미의 대형 종이 작품들 속에 김병중 화백의 글과 그림들이 적절히 스며든다. 이지희 작가의 작품들은 지난해 전 북도립미술관에서 진행됐던 체험전시 '페이퍼 점(PAPER+JAM)'의 전폭 권 공립미술관 순회전시의 일환이다. 미술관 관계자는 "관람객들은 이지희 작가가 종이로 제작한 압도적인 입체 작품들 속에서 김병중 화백의 반짝거리는 글과 그림도 만나게 될

것"이라며 전시실에서의 색다른 경험을 약속했다. 미술관 1층에는 아시아와 유럽, 2층에서는 이집트와 아마존, 아프리카에 대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이지희 작가의 종이 작품들은 높이 5미터가 넘는 대형 작품들이 다수여서 직접 봐야 실감할 수 있다.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가족들이 관람하기 좋은 전시이다. 전시는 이달 21일부터 오는 4월 13일까지이며 무료 관람이다. 다만 설 연휴 기간에는 대체공휴일인 27일을 포함해 30일까지 개관한다. 대신 31일은 휴관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독서모임 지원금 '최대 100만 원' 확대



완주군이 2025년도 독서모임 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독서문화 활성화를 도모한다. 군은 올해 약 18개의 독서모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심사 기준에 따라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원금의 10% 이상은 자부담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13개의 독서모임을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고,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성과로 올해 사업의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 내

용은 독서모임 토론용 도서 구입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 도서관 내 활동 공간 지원 등을 포함한다. 신청 대상은 완주군 도서관을 기반으로 활동 계획이 있는 독서모임 단체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독서모임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구성원의 70% 이상이 완주군민 또는 완주군 소재 직장인으로 이뤄져야 하며, 독서모임 활성화 홍보에 협조할 수 있는 단체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로, 완주군립 도서관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완주군립중앙도서관 2층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1,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2025년 3월 중 완주군청 및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 완주군,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가동...대책상황실 구축

완주군이 설 연휴기간인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설 연휴 응급진료 대책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14개소, 문 여는 병·의원 61개소, 약국 41개소를 운영한다.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센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완주군홈페이지▲완주군보건소 상황실(063-290-3015)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군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및 약국을 안내하고, 의료기관 진료체계 유지 등을 점검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심야시간대에는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로 신고된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안전상비의약품 구입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 진안군, MOU 체결국 필리핀 계절근로자 올해 첫 입국

진안군은 21일 성실근로자들의 입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2025년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 계절근로자 중 성실한 근무로 농가주로부터 재입국 추천을 받은 우수한 13명의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했다.

필리핀 퀴리노주 9명, 이사벨라주 4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당초 2024년도에 필리핀 해외 이민자 노동청(Department of Migrant Workers)이 신설되면서 계절근로자들의 대한민국 송출이 한 달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기에 맞춘 정상적인 입국을 할 수 있게 돼 적절한 시기에 농가들의 일손을 도울 수 있게 됐다.

마령면에서 토마토 하우스를 운영하는 김동환 농가는 “이사벨라주에서 오는 근로자 프린세스와 로렐린은 3년째 우리집에서 일하면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고마운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입국을 환영했다.

진안군 농업정책과 이정희 과장은 “농사 규모와 작목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활용으로 농가 소득의 증대를 도모하면서 근로자도 농가도 행복한 진안군 농업 현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2025년 223농가 807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 받아 MOU 체결국 필리핀 계절근로자 472명, 관내 결혼이민자 4천 이내 가족 초청 335명을 도입해 진안군 농가의 안정적 인력수급을 통한 계획 영농을 도모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치즈테마파크 직원들, 임실 성수면에 95만원 기탁

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문영두) 직원 일동이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면사무소를 방문해 현금 95만원을 기탁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2021년도부터 직원들이 손수 모은 성금을 매년 명절마다 기탁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설 명절에도 어김없이 성금을 모아 면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번 기탁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를 통해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성수면 행복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김두성 성수면장은 “지난 추석에 이어 설 명절을 맞아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임실치즈테마파크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면에서도 기탁자의 뜻에 따라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마음 따뜻한 복지를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전통시장 특별 안전 점검·화재 예방 캠페인 전개

장수군은 지난 20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경덕 부군수의 주재로 진행된 특별 점검은 장수시장의 비상 대피로 확보와 소화기 상태 확인 등 각종 시설물과 소방 점검, 화재 예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강 부군수는 현장에서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노후화 시설 및 화재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했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스프링클러 관리상태, 방화 구역 내 장애물 적치 여부 등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했으며 확인된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안전 점검을 강화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장수군은 같은날 장수시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안전보안관 및 안전재난과 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예방 캠페인도 전개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취약계층대상명절지원금전달

### 7년째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위한 복지행정

임실군이 올해로 7년째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명절지원금’을 전달한다.

군은 민선 7기인 2019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에 취약계층을 위해 15만원에서 25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에 단기 역할을 해내며,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설 명절에도 임실군은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취약계층 955가구 1,073명에게 1억4천여만원을 투입해 임실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임실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차상위수급

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인 가구는 15만원, 2인 가구는 20만원, 3인 가구 이상일 경우 25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이번 상품권은 12개 읍·면에 상품권을 교부하고,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설·추석 명절에도 어려운 지역인 1,963가구 2,234명에게 총 3억800여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임실읍에 사는 김OO 씨는 “올 설에도 불가사 치솟아 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했는데, 임실사랑상품권 지원을 통해 이번 설에는 평소보다

풍족하고 따뜻하게 명절을 보낼 것 같다”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군은 설과 추석 명절에 상품권을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 “꾸준히 실천해 온 민생정책의 일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군, 4년 연속 ‘한국관광 100선’ 선정

### 반디랜드·태권도원, 2025-2026 선정...외국인 관광객 꼭 기볼 만한 대표 관광지 호평

무주군은 ‘반디랜드’와 ‘태권도원’이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2024년에 이은 영예로 4년 연속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선정됐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여행수요 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정(2013-2014부터 3년으로 7회 차) 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상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및 관광사업 시행 공간 및 시설, 지자체 대표 관광지 중 서면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무주 반디랜드와 태권도원은 대표성과 매력성, 성장가능성, 품질관리계획 등 모든 선정 기준을 충족시키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 반디랜드는 2천여 종의 희귀 곤충 표본을 보유한 곤충박물관과 반

딤불이연구소, 청소년야영장, 통나무집, 반딧불이 서식지를 보유한 체험·휴양·학습공간이라는 점에서 대표성과 매력성을 인정받았으며 2021년 대한민국 안심관광지, 인바운드 안심관광지에도 선정(한국관광공사)된 바 있다.

태권도원은 국제경기를 비롯한 체험과 수련, 교육, 연구 등이 가능한 경기장과 박물관, 공연장 등을 두루 갖춘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복합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2021 전라북도 유니크베뉴 5선에 선정(전라북도)됐으며 2022년에 이어 2024-2025 웰니스 관광지 웰니스 관광지에도 선정(한국관광공사)되는 등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반디랜드와 태권도원은 바로 인근에 위치(설천면 무설로)해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대로 접근성이 가능하며 다양한 체험과 학습, 관광, 숙박

등이 가능하다는 점,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 관광객 수용력이 뛰어나다는 점, 또 라제몬토를 비롯한 구천동 33경 등 주변 명소와 연계 관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외 정결·위생관리, 안내·이용 편의 무장애관광 편의(장애인화장실,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갖춤), 불편사항 관리 등 품질관리계획 역시 만족을 시켰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문화자원,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태권도 등 무주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한국관광 100선의 매력이 기다리고 있다”라며 “반디랜드와 태권도원이 한국관광 100선의 위상을 높이고 전북의 명소들과도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 진안군, 10억원 투입해 LPG 배관망 구축 마무리

### 정천면 상조림 마을에 친환경에너지 공급...전 군수, ‘에너지 복지 향상 위해 노력할 것’

진안군이 정천면 상조림 마을에 추진한 친환경에너지 공급사업이 마무리되며 마을 주민들에게 친환경에너지(LPG)를 공급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3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됐으며 지난해부터 사업비 10억원(기금7억원, 군비2억원, 자담1억원)을 들여 LPG 소형저장탱크 2.45t 2기 및 배관망을 구축했다.

사업을 통해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구축하고 각 세대에 난방용 보일러, 가스계량기 등 부대시설을 설

치했으며 상조림 마을 71세대는 취사와 난방용 LPG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수변구역 마을을 대상으로 친환경에너지(LPG)를 중앙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난방·취사용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도시가스 수준의 환경성·안전성·경제성을 제공해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번 LPG 배관망 사업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기존 LPG 용기나

화물, 실내 등유를 이용한 개별 난방에서 집단 공급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료비를 3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제적인 이점도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통해 최근 급등한 연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불균형 해소와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장수군, ‘설 명절 민생안전 종합대책’ 추진

### 종합상황재난관리 등 6개 반 편성...귀성객에 생활 민원 서비스 제공

장수군은 함께 살아가고 함께 나누는 설 명절을 위해 민생경제 지원 등을 병행하는 ‘2025년 설 명절 민생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설 연휴인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당직사령을 상황실장으로 장수경찰서와 장수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군민 안전을 전제로 한 민생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종합상황 △재난관리 △물가안정 △생활민원 △도로교통 △의료·가축방

역 대책을 담당하는 6개 반으로 편성된 장수군 명절 종합상황실은 군민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연휴기간 생활 민원 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재난관리대책반은 재난·재해 상황에 적극 대처, 불기안정대책반은 불기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의 지도·점검 활동을 펼치고, 생활민원대책반은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교통대책반은 연휴기간 귀성객

의 교통 편의를 위한 터미널 상황 파악 관리, 재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상황파악 및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연휴기간 진료대책과 가족전문병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가축방역대책반을 편성해 군민과 귀성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설 연휴 기간 민생안전 종합대책 추진으로 군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최훈식 장수군수, GBCH 챌린지 동참

###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기원...군민에 관심 부탁

최훈식 장수군수가 21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GBCH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성공적인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도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작한 응원 릴레이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작으로 주요 인사들의 릴레이 형식 참여로 지역 주민들이 올림픽 유치를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힘을 모아 전북이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취지로 시작됐다.

최 군수는 윤희태 전주군수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도민의 뜻 모아! 힘 모아!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에서!’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최훈식 군수는 “2036 하계올림픽이 전북에 유치된다면 올림픽이 개최되는 동안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며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의회 최한우 의장과 장수교육지원청 추영근 교육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무주군, 설 명절 전 군비 직불금 9억여 원 지급

무주군이 5,545 농가, 3,346ha 규모에 군비 직불금 9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무주군에 거주하며 지역 내에 위치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들로 지원단기는 1ha당 2만원이다.

한편, 축산농가(240호)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2억여 원을 지급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발생한 가격하락 피해를 일부 보전해 주는 것으로, 무주군은 FTA 피해보전직불 축

산분야 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240 농가(한·육우 2587마리)를 선정했다. 올해는 한우 수급 안정화에 주력하는 방침으로 한우 품질 향상 지원 및 판매촉진에 공을 들인다.

이외 3억 4천3백만 원을 투입해 사료값 상승에 대비해 섬유질배합사료를 구입하는 등 고품질 한우 생산 지원에 주력하고 농업안전센터에서 발표되는 한우수급 동향 정보도 농가에 수시 제공할 계획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 진안군치매안심센터, ‘안심택시 송영서비스’ 운영

진안군 치매안심센터는 21일 진안군 보건소에서 진안군 개인택시조합(조합장 이종삼)과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매안심택시 송영 서비스”사업은 치매안심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여 참여율을 향상시키고, 사전에 치매 선별 검사를 통해 치매 진단(검사)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협약 병원인 진

안군의료원에 진료를 위한 이동 편의를 위해 가정에서 대상지까지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진안군은 이를 통해 치매 관련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나 거동이 불편하고, 거리가 멀어 이동이 힘든 경증 치매 환자가 안심 택시를 통해 안정하고 이동함으로써 치매 증상 악화 방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군, 설 명절 연휴 돈사 특별 지도·점검 실시

임실군이 악취 없는 쾌적한 설 명절 연휴를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군은 내달 7일까지 악취 유발 가축 분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악취 민원 유발 시설 및 최근 1년 내 위반시설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악취 발생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

이며,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악취농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 포집을 병행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군은 설 명절 연휴 기간 내 환경오염 사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가축 분뇨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 대한한동협회 진안군지부, 설 맞이 돼지고기 155kg 기부

대한한동협회 진안군지부가 설 명절을 맞이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진안군청 부군수실을 찾아 3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155kg을 진안군에 기부했다.

이 날 기탁식에는 대한한동협회 진안군 지부의 김송규 지부장 외 임원들이 참석해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했다.

김송규 한동협회 진안군지부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한동협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주영환 진안 부군수는 "경기 침체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매년 진안군민을 위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대한한동협회 진안군지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대한한동협회 진안군지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를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장수군, 설 명절 맞이 '장수가꿈드림' 300세트 전달

장수군이 21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가공한 농산물과 식품으로 꾸러진 '장수가꿈드림' 300세트를 지원했다.

'장수가꿈드림'은 장수군에 기부된 소중한 이웃들기 성금을 활용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잡곡, 사과 등 농산물과 장수한우곰탕, 장수한우육개장 등 가공식품 10종의 구성된 먹거리 세트(10만원 상당)다.

특히 '장수가꿈드림'은 장수군 지역 농가와 업체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구성돼 취약계층을 돕는 동시에 지역 농가와 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따뜻한 보살핌과 지원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익산시청 펜싱팀, '금빛 사냥' 4개 메달 획득

### 전국종목별오픈펜싱선수권대회 금2, 은1, 동1 획득...남자 에페 단체 4년 연속 금메달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이 2025 전국종목별오픈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새해를 금빛으로 기분 좋게 시작했다.

익산시는 시청 펜싱팀이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선보이며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5 전국종목별오픈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익산시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이 전국종목별오픈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새해를 기분 좋게 시작했다.

대회 이틀째인 15일 양윤진 선수가 남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화성시청의 손민성 선수를 15-9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정병찬 선수가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16일 열린 남자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권영준·양윤진·정병찬·김중준 선수가 짜릿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9일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최신희·최수빈·최지영·조예원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청 공무원, 명절 앞두고 군산사랑상품권 3천만원 쾌척

### 지역상권 활력 위해 군산시 공무원들 '청원한사랑 모금액' 전달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덕하)이 설명절을 맞아 이웃사랑 실천에 들어갔다.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군산시 저소득 세대 및 사회복지 시설의 외식비 등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군산사랑상품권 3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군산시 공무원들이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매월 기부해 마련된 '청원한사랑' 모금액

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복지 시설에 지원된다.

시 공무원들을 대표해 기탁식에 참석한 박덕하 위원장은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부한 성금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전달돼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외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 행복드림복지회 두리ENG, 주택 복구 5백만원 후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1일 도청 3층 소방본부 장실에서 이오숙 소방본부장과 김선례 (사)행복드림복지회 두리ENG 대표, 노진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도지회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취약계층 화재 피해 주택 복구지원을 위한 후원금 기탁식을 가졌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화재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회복 지원사업에 힘을 보태주시는 행복드림복지회 두

리ENG 관계자들에 감사드리다"며 "화재피해자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은 소방공무원의 용소방대원의 기부금 및 사회복지단체 후원금으로 화재피해주민에게 집을 새로 지어주는 119행복하우스 사업과 주택을 수리해주는 119안심하우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 완주군 느티나무단체, 고산면 찾아안경 나눔 봉사

완주군 느티나무단체(회장 오상영)가 지난 20일 봉사자 10여 명과 함께 고산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관내 어르신 120여 명에게 안경을 나눔했다.

이날 참석한 어르신들은 시력검사 후 돌보기와 선글라스 안경 중 희망하는 안경을 무료 지원받았으며, 단체에서 준비한 간식도 먹으며 답소를 나눴다.

나눔행사에 참석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해오신 느티나무단체와 봉사자분들께 감사하다"며 "군에서 도 어르신들께 늘 가까이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느티나무봉사단은 관내 안경나눔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 지속적으로 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센스안경원, 금강보청기, 삼례노인복지센터, 삼례중앙종교농약사, 삼봉건설중기, 글로벌청년협동조합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완주=김명곤 기자

### (주)대한에스애피, 남원시 독거노인에 쌀 1,000kg 기부

(주)대한에스애피 설봉환 대표와 (주)아이제이 엔지니어링 이철기 대표가 지난 8일 남원시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원을 기부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쌀 1,000kg를 재가노인복지기관에 전달했다.

설봉환 대표와 이철기 대표는 남원시에서 태양광 등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역점을 두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부 소감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꼭 필요한 곳에 기부물품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재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와 담례품(기부금 30% 이내)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남원시는 기부자가 특정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제를 도입해 '2026년 남원 인재학당 기자재 구입 지원'을 목표로 모금에 나설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김제노인복지센터, 어르신 1035명에 떡국떡 키트 나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노인복지센터(센터장 박남주)가 21일 설명절을 맞아 "복이 가득한 새해, 행복한 설날" 행사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035명의 어르신과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들이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 소망을 적어보고 따뜻한 덕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아 희망찬 2025년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김제노인복지센터 생활지원사들이 한마음으로 쌀 840kg을 기부해 준비한 떡국떡1kg과 계란 10구, 사골국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035명에게 직접 전달했다.

더불어 흑한기 계절인 만큼 명절 연휴 기간에도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체 대상자 안전안부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 설천농촌지도자회, 무주군에 성금50만 원 기탁

무주군 설천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이 지난 21일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설천면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다.

송병준 회장은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금이 설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 발전은 물론, 지역과 함께 숨 쉬고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단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설천농촌지도자회는 43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시범포 육성사업 등 영농 기술 시범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청년 및 청소년 등 후계 농업인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 설 연휴 가스·전기 안전사용 안내

### 가스안전사용

1. 귀성길에 오르기 전 가스밸브는 꼭 잠그고 떠나세요
2. 가스사용 전 점검과 환기, 잊지 마세요
3. 세심한 가스시설 점검으로 연휴를 안전 하게!

### 전기안전사용

1.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꼭 뽑고 떠나세요
2. 플러그를 뽑으명 전기도 절약, 화재도 예방 됩니다.



〈一事一言〉



‘자유우파’라는 이름의 ‘망상 공동체’(1)

유시민  
작가

1월 19일 새벽 법원이 내린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윤석열의 친구이자 변호사인 석동현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반헌법·반법치주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계엄령 선포를 옹호하는 윤석열 지지자들은 경찰을 공격하고 서울서부지법 청사를 파괴했다.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제정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윤석열을 보호해 왔던 국회당 원내대표 권성동은 과잉진압이 서부지법 폭동을 촉발했다고 경찰 탓을 했다. 탄핵소추 피청구인 윤석열의 법률대리인은, 헌법재판관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걸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지, 어떤 이들은 그냥 ‘미쳤다’고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그들은 미치지 않았다. 나름의 상황 인식을 토대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한다. 미쳤다고 하기 전에 그들의 주장이 있는 그대로 들어보라. 내 진단에 공감할 것이다. 다음은 윤석열이 답답문이나 서신에서 내놓은 말이다. ‘의미 있다’고 판단한 문장만 추렸다. 원문 그대로가 아니라 발췌 요약했음을 밝혀둔다. 윤석열의 말과 글은 워낙 두서너개 없어 그래야만 했다. 취지는 하나도 바

꾸지 않았다.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된 국회는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중북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제1차 담화)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부산에서 드론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되었다. 지난달 10일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다.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처벌하려고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야당이 가로막았다.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의 일부만 점검했는데도 상황이 심각했다. 해커가 얼마든지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었고 방화벽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선거 관리 전산시스템이 영터리인데 국민이 어떻게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는가. 선관위는 판사들이 위원으로 있어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계엄을 선포해 국방장관더러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했다.”(2024년 12월 12일, 비상계엄 관련 제4차 담화)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을 저지른다. 불법 무효인 영장으로 강압적 체포 절차를 진행하는 것

이 개탄스럽지만 유행사태를 막으려고 공수처에 출석하기로 결심했다. 현실은 어둡지만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열정을 보이고 있으니 나라의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2025년 1월 15일, 체포 직전 공개한 영상)

“전체주의 국가는 주변국을 지배하거나 영향력 아래 두려 한다. 국내 정치세력이 이러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잡으면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지만 우리의 국익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 국가기밀 정보와 산업기술 정보를 원전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내주게 되고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무너뜨려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다.

이것은 명백한 반국가행위다. 이런 세력은 집권 여당일 때뿐 아니라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경우에도 반국가행위를 계속한다.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을 봉쇄해 국정을 마비시킨다. 견제 차원을 넘어 국익을 해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반국가행위를 밀어붙인다.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유권자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폐약을 계속하기 어렵겠지만 선거를 조작해 국회의 운영 관리를 차지하고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2025년 1월 15일, 자필 편지)

이런 말들이 논리적으로 타당

해서 ‘의미 있다’고 한 게 아니다.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사법 절차를 거부하는지, 국회 당 계열의 정치인·변호사·종교인·언론인·유튜버들이 왜 윤석열의 행위를 옹호하면서 법원을 폭력으로 공격하기에 이르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의미 있다’고 했다. 무게를 잡으려는 심리 때문인지 대통령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과 달리 이야기를 에둘러 하는 때가 많았다. 그럴 때는 ‘통역’이 필요하다. 위에서 소개한 문장들을 종합해서 그가 국민에게 말하려고 했던 바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해 보겠다. 이런 주장이다.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다.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조작하는 부정선거로 의회권력을 장악했다. 국회 다수 의석의 힘으로 장관과 감사와 감사원장 등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하고 정부예산을 난도질해 국가 운영을 마비시켰다. 나는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세력 민주당을 일거에 척결하려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가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장악한 국회를 제압하지 못해서 헌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낮은 전북 평균 급여액 제고 방안 찾자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에 그쳤다. 특히 주소지 기준과 원천징수지 기준 모두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를 기록하는 등 최하 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전북의 경제적 활력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전북의 경우 저임금 사업장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이는 익산을 비롯한 도내 주요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IT, 바이오헬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지역 내 인재 유출을 막고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전북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과 제한된 일자리 선택지로 인해 인재들이 수도권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산학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에서 취업한 청년들에게 주거비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도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인재들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도내에서도 전주시와 완주군은 비교적 높은 급여 수준을 기록한 반면, 부안

군과 남원시는 낮은 급여 수준을 보이며 지역 간 격차가 크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열악한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 예컨대, 농업 중심 지역에는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해야 한다. 전북의 많은 근로자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곧 근로자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금융 지원, 시장 진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전환과 판로 개척을 돕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전북의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예산 확보, 특별법 제정, 국책 사업 유치 등을 통해 전북이 전국 평균소득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북의 낮은 급여 수준은 단순히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 삶의 질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다. 전북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도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시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전북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때이다.

**문수사 문수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불교, 불전  
- 지정일 - 1974년 9월 27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고창군 고수면 칠성길 135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창간 / 등록번호 전북 가-00022 (출판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도망가는 산 / 이재무**

사람들이 무서워 산은 마을 빠져나와 절벽절벽, 온갖 질병 앓는 몸으로 도망가네	억척스럽게 온정 피워내더니 허리 깊숙이까지 파 들어오는 독 오른 삼밭이 무서워 품속 가득 꺼안은 것들,	뱀과 바람과 어둠과 구름과 별과 달과 해 한때의 푸른 추억들 풀어 먼저 쟁겨 보내고 그렇그렇, 눈에 밝히는 듯 거둬 되돌아보며 찢뜩찢뜩 먼 길 가네
답장이 무릎 아래 잔뜩 폼이 키우듯 으스스하게 마을 끌어안고	나무와 새와 벌레와 독버섯과 쥐와	

시인 약력 ; 958년 충남 부여 출생. 한남대 국문학을 졸업하고 동국대 국문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83년 ‘삶의문학’, ‘문학과사회’ 등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제2회 난고 문학상과 제15회 편운문학상, 제17회 이육사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선달그림, 온다던 사람 오지 않고, 별초, 몸에 피는 꽃, 한 사람이 있었다 등이 있다. 시선집으로는 오래

전북타임스신문

홈페이지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3  
구독신청 282-9600

전북타임스 신문은 독자여러분을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 정성주 김제시장 “오직 시민, 민생경제회복 올인!”

## 민생을 챙기는 일, 김제시정의 존재 이유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내수경기 침체에 더해 12·3 비상계엄·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 상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현장 중심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 민선 8기,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 지급에 이어 50만원 추가 지급

우선 품종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일상회복지원금 405억원을 확보해 지난 20일부터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지난 1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관련 조례와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앞서 시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탄핵 시국까지 겹쳐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의회에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시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급이 결정됐다.

시는 일상회복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경상경비 축소, ▲효율적인 재원관리 등으로 예산을 절감해 편성했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지가 등록된 8만 900여명으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무기점 카드로 지급되며 오는 5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앞서 지난 2022년 9월, 코로나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시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787억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대단히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다.

### ▲ 지역경제의 버팀목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정책 지원 강화

시는 지역의 체감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분야 10개 사업에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

지난해 시책발굴을 통해 시범추진하여 호응이 좋았던 ▲빈점포 창업지원사업 김제에(愛) (8천만원)마켓 사업,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15억원),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1억5천만원),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4억원),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2천7백만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골목상권 소비진작을 위해 김제지역화폐인 김제사랑상품권을 지난해 938억원에서 올해 980억원으로 40억 이상 확대 발행하고, 명절 및 각종 행사 시 내수진작을 위해 5%의 페이백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 ▲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 농민 기본소득 확대 지원... 소농 직불금 제도 신설, 시비 직불금 도내 최대 지급

시는 쌀값 폭락과 생산비 상승, 일손 부족 등으로 고질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농민들을 위해 (시비)소농 직불금 제도를 신설하고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삼는 등 ‘정성주표 농민 기본소득’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시비)소농직불금은 소농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가당 36만 원씩 지급해 오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3,160농가에 1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시비 직불금은 2023년부터 당초 100억원에서 30억원을 상향해 도내에서는 최대 규모인 130억원을 지급해 오고 있다.(1,177 농가)

시는 올해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14,000농가, 657억원),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6,400농가 292억원), ▲농민 공익수당(17,495명 74억원), ▲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13.7억원), ▲논타작물생산장려금지원사업(40농가 7천 6백만원), ▲어민 공익수당(60어가 3천2백만원) 등 농어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촌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여성 농업인의 영농여건 개선을 위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30개 마을 9천6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4,100명 5억3천만원), ▲여성농업인 특수간담검진 지원사업(370명 8천만원), ▲출산농가 도우미지원사업(6명 5천4백만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 ▲ 취약계층,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

민생경제가 어려울수록 큰 타격을 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전복권 최초로 유지한 천사 무료 급식소 운영(주3회 일/350명), 배세장수어르신 축하물품 지원(41명, 1인 50만원 상당 물품), 위기상황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지원(2,376명 1,422백만원), 취약계층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4,749세대 1,741백만원), 취약계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446명 433백만원)등을 지원해 왔다.

/김제=온봉기 기자

- ◆ 일상회복지원금 1인당 50만원 지급
-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강화
- ◆ 농가 경영 안정·복지사각지대 해소
- ◆ 무료급식소·저소득층 긴급복지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정성주 김제시장은 “단언컨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지방정부이며 민생을 챙기는 일은 시장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회복에 방점을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김제시 NEW 도시브랜드